

1) 역사적 고찰

쪽물이라는 말은 우리 고유의 용어로 짙은 청색을 뜻하는 개념이다. 쪽물은 마디풀과에 속하는 1년초인 쪽(학명은 *Persicaria Tinctoria* H. Gross)에서 뽑아낸 염료이며,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제조 가능한 염료이다.

인류 역사상 식물 염료로서는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바로 쪽물이다.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인도·중국·페르시아 사람들 사이에 푸른색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쪽물염색인 것으로 추측된다. 고대 산스크리트의 기록에 쪽물염료 제조방법이 있는데 이때의 기록이 대략 기원전 4,000년 전의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쪽물 사용에 대한 고증은 기원전 3,000년경에 쪽물로 염색된 길옷의 발견으로 확실해졌으며, 고대 이집트 미라의 염색된 옷이 유물로 남아 있다.

어원적으로 살펴볼 때 라틴어의 ‘인디컴(indicum)’이라는 쪽물의 명칭은 인도로부터 수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디고(indigo)’라고 하여 청색염료를 지칭하였다. 궁복과 제복의 대부분에 쪽물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흥배에도 사용되었다. 심청색 사(沙) 또는 단(緞)의 품위를 가려 다양한 문양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건에도 쓰여 별감은 자건을, 세자궁 별감은 청건을 썼다. 쪽물은 이밖에 일반 서민들의 실생활에도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데, 혼수 옷감이나 이불 및 혼례에 널리 쓰인 족두리와 땡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쪽물염색이 상당히 발달하여 의복·관·장신구 등에 두루 사용되었다. 비록 일반 백성에게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혼수 옷감·이불·땡기·족두리 등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후기에는 더욱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 이후 값싼 서양식 화학염료가 쏟아져 나오자 명맥이 끊기고 말았다. 이렇게 한동안 잊혀졌던 쪽물염색이 우리 것을 찾고자 하는 세대에 발맞춰, 몇 년 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으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